데스크 시각

광주, 아 유 레디?
〈Are you ready〉

박진현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지난 11월3일은 광주와 대구에겐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와 대구 시립미술관(이하 대구미술관)의 일본작가 쿠사마 야요이전(7월16일~11월3일)이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폐막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도시의 명암은 크게 엇갈렸다. '거식기, 머시기'를 주제로 디자인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비엔날레는 목표치(30만 명)에 못 미치는 22만 명의 관람객을 끌어들인 반면 쿠사마 야요이전은 33만 명을 동원하는 '대박'을 낸 것이다. 물론 전시기간과 콘셉트가 다른 데다, 관람객 숫자만으로 대구의 손을 들어주는 게 조금 '거시기' 하지만 쿠사마 야요이전의 흥행은 미술계를 놀라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쿠사마 야요이전은 관람객 33만 명 가운데 25만4527명이 유료입장객이었다. 입장료 5000원의 수입만으로 10억2700만 원을 거뒀다. 전시예산 5억 원을 들여 2배 이상의 수익을 냈으니 꽤 '재미'를 본 셈이다. 반면 20억 원을 들인 디자인 비엔날레는 관람객 22만 명 가운데 유료관람객이 17만 명에 그쳤다. 그나마 40%에 가까운 입장객이 학생 단체관람이었다.

'미술 대구' 알린 야요이전

하지만 쿠사마 야요이전의 가장 큰 성과는 이런 기록들이 아니다. 대구미술관은 기획전 하나로 개관 2년 만에 전국에 '미술도시 대구'의 존재감을 심어줬다. 내놓을 만한 소장품도 거의 없고, 접근성도 떨어져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동안의 설움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여기에는 지난해 50대 초반의 기획자를 관장으로 영입하고, 단일전시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대구시의 '통 큰 지원'이 큰 힘이 됐다. 비록 부산영화제,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메가 브랜드와 필적하기 어렵지만 '웰메이드 전시'를 통해 근현대 미술 중심지로서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13일 개막한 대구아트페어는 미술시장의 불황에도 전국에서 3만 여명이 다녀가는, 이른바 '쿠사마 야요이 효과'를 누렸다.

대구의 잇단 쾌거는 '소리만 요란한' 광주시의 문화행정을 되돌아 보게 한다. 대형 문화이벤트들을 추진하면서 행·재정적 뒷받침을 소홀히 하는 '전시행정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올해 7월 부산, 경주, 전주 등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국내 대표도시로 선정된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사업과 내년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 지정을 겨냥한 '2013 광주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좋은 예다.

지난 10월 설치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은 시의 예산 지원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요코하마(일본), 취안저우(중국)시의 경우 각각 40억 원과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인'하고 있는데 반해 광주는 행사비로 고작 4억 원을 책정해놓았다.

市, '문화융성의 해' 준비해야

더욱이 최근 요코하마가 일본 전역에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달리 광주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윗선'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역시 용두사미로 끝난 케이스.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 지정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으나 고작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오는 2014년은 광주의 문화지형을 업그레이드하는 대형프로젝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착공 9년 만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전당)이 내년 말 완공되는 데다, 한해 예산 6200억 원에 달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가 4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전당과 예술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문화계와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다 광주비엔날레가 창설 20주년을 맞이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2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문화융성의 해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 광주시의 '주변'을 들여다 보면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싱크탱크인 광주발전연구원은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대다수 문화예술기관의 수장은 혁신과는 다소 먼 60~70대 원로들이다. 또한 2015년 U대회 준비에 올인하는 시의 방침에 따라 이들 대형프로젝트의 예산 지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꿈꾸는 광주에게 2014년은 기회이자 위기다. 광주시는 문화융성의 해에 걸맞는 정책과 인물, 행정의 '환상적인 3박자'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우물쭈물하다간 '무늬만 문화수도'인 2류로 전락하게 된다. 장밋빛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jhpark@kwangju.co.kr

은펜칼럼

건배사의 진화

이병우
광주대 자율 융복합전공학부 교수

바야흐로 건배사의 계절이다. 송년모임에서 멋진 건배사와 함께 자리를 한다면 이 또한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각종 매체에서도 연말 술자리 대처 방법과 건배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어디 그뿐일까. 서점에 가면 건배사에 관한 책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덩달아 건배사 스마트폰 어플까지 나와서 주당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다.

스피치 강의에서 어느덧 건배사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이제 건배사는 개인의 스피치 능력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됐다. 술자리에서 잠깐 얘기하는 건배사가 이젠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스피치 능력으로 격상됐다고나 할까. 때로는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모임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장기자랑이나 건배사'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양한 술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민국답게 우리의 건배사도 시대에 맞게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위하여"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건배"가 한자어여서 순 우리말 구호를 사용하자는 제안에 따라 일반화됐다. 이후에 삼행시 형태의 축약형, 스토리텔링형 등 다양한 건배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때로는 시대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 지난해 한 주류회사에서 건배사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선호하는 건배사는 "너나잘해(너와 나의 잘나가는 새해를 위해)"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건배사를 잘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기도 한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오바마' 건배사 사건처럼 한방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후에 많이 조심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건배사나 술자리 유머가 듣기 민망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 '오바마'나 '진달래', '택시', '성행위' 같이 성적인 표현이나 해석에 따라 오해를 사는 건배사는 삼가야 한다.

건배사에 성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영국 해군은 지난 200년간 사용했던 몇 개의 건배구호를 퇴출하기로 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아내와 애인을 위하여(To our wives and sweethearts)'인데 그 다음엔 '그들이 절대 서로 만날 일이 없길(May they never meet)'이라는 대구가 따라오곤 했다. 앞으로 이 건배사는 사용이 금지된다. 대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To our families)'를 써야 한다.

건배사는 "30초의 예술", "30초의 승부"로 불린다. 30초 스피치의 결정판으로 말하는 사람의 품격과 재치를 엿보게 해준다. 2013년을 보내면서 모두가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건배사를 기대해본다. 30초 예술을 위하여~!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광주의 미래, 문화·예술교육으로 그리다

김승
동명중 교장·전 광주서부교육장

광주는 예로부터 '맛의 고장' '예술의 고장'으로 불리며, 외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광주시민도 스스로 광주를 '예향'이라며 자부심이 대단하다.

또 광주는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를 격년제로 개최해 세계적인 예술 행사로 키워가고 있다. 2015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을 열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곳에선 각종 콘텐츠를 선보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 걱정되는 일이 있다. 이런 좋은 시설과 콘텐츠가 있어도 채울 사람(관객)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각종 공연과 전시장을 채울 관객이 없다면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공연예술팀이 광주에 왔는데 티켓을 사는 사람이 없어 객석을 채울 수 없다면 훌륭한 극장시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광주에 갔더니 '광주사람들은 밥값을 아껴서라도 전시와 공연 티켓을 사서 관람하더라'는 말을 들어야 진정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광주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진정한 문화·예술의 소비자가 될 때 광주는 명실공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고, '예향'으로서 전통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다. 타지역 사람들도 광주와 광주시민을 부러워하고 광주의 문화·예술을 소중하게 여기며 존중할 것이다.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예술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유·초·중·고등학생 때부터 문화예술을 즐기고 소비할 줄 아는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 지금의 학생들이 미래 광주의 문화·예술 소비자로 멋지게 자라야 한다. 아이들이 자라서 품격있는 시민으로 성숙할 때 광주만의 정체성이 제대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광주를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광주만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 1인 1 예술 활동을 유·초·중·고교 전 과정에서 실시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 동아리를 많이 육성·지원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학생 교육 자료나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보급하고 학생들의 예술 활동을 발표·공연할 기회도 풍부하게 마련해줘야 한다.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서는 안목이 트여야 한다. 자주 보고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특설 시간을 마련해 예술활동을 접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도 키워야 한다. 재능 있는 인재들이 발굴되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이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악기 등 예술활동을 위한 도구를 대여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훌륭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행복은 입으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멋진 예술품, 감동을 주는 영화 한 편 등 예술만큼 우리를 순간적으로 행복에 몰입하게 하는 것은 없다. 돈이 없어 서민으로 살아도 문화예술을 즐길 줄 아는 삶은 행복하다. 이러한 삶은 품위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서민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귀족이라 할만하다. 돈이 있어도 문화예술을 즐길 줄 모른다면 귀족적 천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광주가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전 국민과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길은 문화·예술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때일 것이다. 학교교육을 통해 이를 이뤄 보자. 광주만의 정체성 교육을 확실히 해보자. 그리하여 미래의 모든 광주시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는 삶을 갖도록 하자. 광주의 그림을 문화·예술 교육에서 찾아보자.

수렵장 총기사고 예방위해 엽사 안전교육 강화를

유해야생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설정한 수렵장에서 잇따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허술한 수렵장 관리와 자질이 부족한 엽사들이 원인으로 지목돼 수렵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한 이후 한 달 만에 엽총사고로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개장 초기지만 벌써 2011년(2명 사망, 3명 부상), 2012년(2명 사망, 7명 부상)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 수렵기간이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4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사상자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엽사와 수렵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는 각 시·군마다 수렵을 신청한 엽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수렵지도와 승인서, 밝은 색의 모자가 전부다. 더욱이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밝은 색 옷과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안전을 위한 장비착용 등에 대한 의무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안전대책이 없이 허술하게 수렵장이 운영되면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엽사들을 위한 안전교육은 순환수렵장이 열리기 이전에 한차례 걸쳐 서약서 작성과 교육을 받는 것과 수렵 기간 추가 교육을 받는 것 등 총 2차례가 전부로 모두 이론 교육이다.

따라서 엽사들이 사용하는 엽총은 발사지점과 최소 100여m 이상 떨어져야 중상을 피할 수 있는 만큼 방탄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실전교육을 신설하는 등 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문제는 수렵장과 엽사 관리의 부실이다. 지자체 한 곳당 관리해야 하는 수렵장 면적은 여의도 수십 배에 달한다. 읍·면별 10여 명으로는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정도만 설치할 뿐 수렵장 출입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엽사들이 수렵 면허가 없는 일행과 무단으로 수렵장에 들어가도 통제가 안 되는 실정이다.

총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엽사들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자치단체 등에서 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실전에 맞게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재·광주시 동구 양림로

社 說

5·18 역사 왜곡, 정부가 적극 대응 나서라

5·18 민주화운동이 33년여를 맞았으나 진상 규명과 역사 왜곡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죽음과 피로써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희생자 수와 발포 명령자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등 미완(未完)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외면으로 5·18 기념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지는가 하면, 국가보훈처장이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자 지난 7월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5개월 동안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5·18에 대한 역사 왜곡과 비하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보수 인터넷사이트에는 5·18 당시 희생된 시신과 계엄군에게 포박된 시민들을 '배달될 홍어 포장'이라는 비방의 글로 넘쳐나고, 일부 종합편성체널은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것처럼 방송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5·18을 폄훼하는 내용을 버젓이 게재해 공분을 사고 있다.

5·18 학살 원흉자들이 사법처리되고, '폭동'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항쟁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5·18이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지만 반역사적 세력들의 왜곡·비하는 끊임이 없다. 우리 모두가 진정 추구해야 할 5월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요원할 따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고, 5·18 유족 및 광주시민들은 이념 논쟁의 굴레 속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5·18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민주화운동의 그 정신에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라면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해야 한다. 그 보편적 가치와 정신계승은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자율규약 통해 해결하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이웃간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비가 붙어 멱살잡이를 하는가 하면 폭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하니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사라진 이기적인 세태가 씁쓸하기만 하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8일 아파트 위·아래층에 살면서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이웃 주민 김모(여·42)씨와 정모(33)·박모(여·31)씨 부부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서구 풍암동 D아파트 계단에서 애완견 소음 민원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 광주 광산구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아래층 주민이 위층 주민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10시10분께 광산구 장덕동 S아파트 입구에서 아래층에 사는 최모(34)씨가 위층에 사는 정모(40)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주민 누구나 안고 있는 딜레마다. 소음이 노출되는 아래층 주민은 피해자인 동시에, 사건 발생 시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위층 주민 역시 생활소음에 신경을 써야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갈등을 풀어줄 해결책이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소음기준과 처벌법규를 강화한다고 해도 갈등만 증폭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정부 대책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 공동규약을 마련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웃끼리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호색한

"펠리니, 내가 일 년 전쯤에 계산을 해봤는데, 13살 때 첫 관계를 한 이후로 1만 명의 여성과 만났다오. 그런데 그건 조금도 범죄가 아니었소. 정말 성적인 범죄가 아니었고, 나는 소통을 할(communicate) 필요가 있었던 거요."

1977년 2월 21일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와 한 인터뷰에서 조르주 심농(Georges Simenon)이 털어놓은 이야기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여성편력가로 이름 높은 벨기에의 유명작가 심농은 잡지 'People'과의 좌담에서도 "창녀도 공주만큼이나 존중받아야 한다"며 "나는 나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77세였던 그는 '1만 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지금까지 매주 2~3명을 만났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그 모든 여성을 꼭 내가 유혹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만 여성들과의 접촉(contact)에 목말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심농이 죽은 뒤 그의 아내는 "남편과 관계를 한 여자가 1만 명은 아니었을 테고, 많아봐야 고작 1200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만, 그렇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1900년 대여서 '오입쟁이'라는 욕을 먹는데 그쳤지, 지금이라면 철창 신세를 졌을 가능성이 크다.

재력과 권력의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일 테지만, 어떤 분야에서건 목표를 치열하게 추구해가는 정열의 이면에는 이성에 대한 '남다른' 갈구가 있는 듯하다. 백악관에서 여성인턴과 불륜을 저지른 빌 클린턴 대통령과 아예 백악관에서 정부와 함께 생활했던 루스벨트 대통령,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스트로스칸 IMF총재, 불륜이 드러나 이혼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등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취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유혹의 나락'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엔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브라질 매춘클럽에 이어 호주 스트립클럽에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 입살에 올랐으며,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 시인 교사 서정윤씨가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되기도 했다.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코뿔소처럼 '위험' 속으로 돌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심농처럼 '소통'이 필요해서라면, 어쩐지 슬퍼진다. 모두들, 정말 그렇게 외로운 건가.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제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12	체육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